

삶의 질 향상과 보건복지 지식정보화



李京浩

보건복지부 차관

21세기에 들어 우리의 사회·경제생활은 더욱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다. 그 동안 머릿속의 상상으로 머물러 있었던 일들이 속속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 더 큰 변화를 다소의 두려움과 함께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주요 배경은 가치창조에 있어서 지식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어 오고 있는 점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화를 들 수 있다. 즉, '지식정보화'가 21세기 사회의 진화를 추동해 나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정보화는 정치, 경제에서부터 교육, 오락,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제까지와는 매우 다른 세계로 안내할 것이다. 나아가 지식정보화의 수준에 따라 개인과 조직,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또한 좌우될 것이다.

보건복지 분야는 건강증진, 질병치료, 기초생활보장,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이 분야는 사람과 사람간에 몸과 마음이 부딪치면서 교감하는 일이 보다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같은 최근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긴요성이 덜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보건복지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식정보화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요청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보건복지와 지식정보화의 접목을 통해 모든 국민은 포괄적인 양질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보건복지 지식정보화가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은 무엇일까? 우선, 지식정보화를 통해 비효율적 요소들을 해소하는 것이다. 가령, 4대 사회보험 전산망 연계, 보건산업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사이버시장 활성화를 통해 보건복지기관이나 운영체제는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정보를 최대한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분산되어 있는 개별적인 정보체계를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하거나 새로운 정보체계로 통합 구축해야 한다. 가령, 진료정보의 공동활용체계, 사례관리시스템 등의 구축을 통해 유용한 정보는 매우 빠른 시간안에 공유, 활용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각 분야별로 지식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과정과 서비스 제공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다 많은 정보접근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분야별 정보포털사이트, 사이버 민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지식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의 하나인 계층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줄여 나가는 것이다. 시각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은 지식정보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소득과 삶의 질 면에서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도 있다. 시각장애인용 소리서비스 장치와 같은 기술개발과 노인,

저소득층의 정보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정보접근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복지지향적 지식정보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공동으로 보건복지 지식정보화 전략계획을

지식정보화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요청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보건복지와 지식정보화의 접목을 통해
모든 국민은 포괄적인 양질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립하고 있다. 고령화의 진전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등 보건복지의 환경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도를 고려해 볼 때 다소 늦은 감은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용자 중심의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국민건강과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지식기반 보건산업, 편리하고 신뢰받는 사회보험서비스, 필요할 때 어디서나 제공받는 복지서비스, 열린 디지털 복지행정을 수립·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수집·분석되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면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해 나갈 알찬 계획들이 수립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 분야 및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들의 지혜와 활발한 공조를 기대한다. 